

이스타항공 M&A, 3가지 관전 포인트는?

☑ 제주항공 노딜선언? ☑ 250억 임금체불 ☑ 노노갈등

양사 간 협상 '시계제로' 상태
제주항공측 인수 포기 선언 아직
최종딜 성사 가능성도 남아있어



2일 최중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체불 임금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스타항공의 매각을 위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향후 두 회사가 어떤 길을 갈지 관심이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의 M&A에서 3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직 의원의 결정 및 최종 거래 성사 여부에 대한 제주항공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약 250억원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직원들 간 갈등의 격화 등이다.

먼저, 지난달 이스타항공의 기자회견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제주항공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측은 이미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포기하고, 다음주 중 관련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전 지분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처음 알려진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항공 측의 공식적인 인수 포기 선언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종 딜 성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제주항공 측에 선결 과제 이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지급 보증금이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 대한 설명, 대면 협상 요청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이 선행 조건의 해결을 요청하며 멈춰선 협상이 다시 가동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양사 간 협상을 '시계제로' 상태로 만

들었던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해소 여부도 M&A의 쟁점 중 하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들에게 급여의 40%만을 지급하고, '첫다운'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무급으로 대응해 체불임금만 약 25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제주항공은 지난 5월 7일 이스타항공 측에 체불임금의 선 해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최중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체불임금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향후 이스타항공 측이 법적 책임을 지며 자연스럽게 논쟁이 해소될 가능성도 생겼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에서는 지난 4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스타항공 측이 지난달 9일 체불임금 지급명령 시한을 넘기면서 최 대표이사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본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처음 드러난 직원들 간 갈등도 이스타항공 노사 간 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이스타항공 근로자 대표들도 참석했는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과의 의견 대립을 보인 것이다. 실제 근로자 대표 측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으나,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근로자 대표 선정 관련) 저희는 정상적인 투표라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근로자 대표 5명을 뽑는데, 회사가 5명을 선정해 후보로 올려놓고 투표를 했다"며 "조종사도 한 직군인데, 거기에 조종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노조는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며 야에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직원 없이 술·담배 구매... 일상화 되는 무인 편의점

언택트 구매 증가에 점포수 증가세
다양한 IT역량 등 신기술 총 집약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DDR점을 이용하는 고객 /세븐일레븐

최저임금 상승과 전례없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편의점 무인점포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보안 걱정없이 안전하게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DT(Digital Transformation)를 강화해 설계한 '시그니처 DDR점(서울 중구 수표동 소재)'을 1일 오픈했다.

해당 점포는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롯데데이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롯데 그룹 계열사의 IT역량과 신기술이 총 집약됐다.

그간 세븐일레븐의 스마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다소 제한된 상권 중심으로 점포를 확대해 나가며 가맹 비즈니스 안정성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지난 2017년 5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에 '핸드페이', '무인 계산대' 등을 갖춘 최초의 시그니처 매장(1.0모델)을 선보인 이후, 이듬해 인공지능결제로봇 '브니(VENY)' 개발과 함께 인오피스(In-Office), 인팩토리(In-Factory), 주유소 등 다양한 특수상권(2.0모델)에 들어서며 로드샵 진출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 왔다.

세븐일레븐 측은 시그니처 3.0모델을 통해 편의점의 본질적 가치인 24시간 운영을 지키고, 언택트 소비 트렌드

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편의점 쇼핑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화 가속도...인증도 간편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인 점포 도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GS25와 CU도 무인점포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GS25는 무인, 하이브리드(야간 무인)형 점포 등 스마트스토어를 현재 100여점 운영하고 있다. CU는 130여개의 무인 점포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도 직원의 검사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CU와 GS25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배와 술 등을 구매할 때 필요한 성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에 담배나 술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실물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 QR코드나 바코드 스캔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워크 메인 라운지에 도입된 이마트24 SELF MINI /이마트24

이마트24는 초근접 컨셉의 매장을 선보였다. 이마트24는 공유사무실 플랫폼 위워크(WeWork)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워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13개 지점에 셀프미니 편의점을 입점시켰다. 위워크 메인 라운지 공간에 편의점 제품이 진열된 무인 키오스크를 배치해 제품 구매뿐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이나 휴식 역시 쉽게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편의점을 일상 업무 공간에 녹여낸 것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일자리 감소 우려
이같은 무인화 점포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모바일결제나 무인 매장 이용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또,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美 나스닥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고용지표 개선에 부정적 요인 극복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지수가 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우려 등 다른 부정적인 요인을 이겨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95.86포인트

(0.95%) 오른 1만154.63에 장을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23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9일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2.29% 오른반면 에너지와 금융주는 각각 2.49%, 1.04%씩 하락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LG화학,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1~5월 점유율 전년 동기비 4계단 ↑

LG화학이 올해 1~5월 전세계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계단 급상승한 수치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4위와 7위로 세계 10위권을 수성했다.

2일 시장분석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5월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70.5% 급등한 7.8GWh 사용량으로 순위도 4위에서 1위로 뛰었다.

삼성SDI는 사용량 2.1GWh로 전년 동기 5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SK이노베이션도 1.3GWh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두 계단 상승한 7위에 안착했다. 올해 1~5월 전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32.5GWh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23.9%



LG화학 여수공장 전경. /뉴시스

감소한 수준이다.

SNE리서치는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2위를 차지한 CATL과 3위 파나소닉 등 대다수 일본계 및 중국계 업체들이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은 지속적인 선전을 이어갔다. 한국계 3사 모두 시장 점유율이 늘면서 이들 3사의 점유율 합계가 전년 동기 16.4%에서 34.8%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김수지 기자

“연체우려 자영업자에 지원방안 긴급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8개 시중은행장과 조찬, 지원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금융지원 방안들이 끝나가면서 감독당국이 은행에게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들이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체우려 자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일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김원원

업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매출·수익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긴급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